

SK, 인천정유 직원 고용보장

구조조정 않고 복리·급여 향상 ... 정제인력 증원 가능성

SK에 인수되는 인천정유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SK는 최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정유 직원 490여명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천정유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급여수준도 SK와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SK는 인천정유 매각입찰에 뛰어들면서 제시한 인수계획서에 일자리 유지 및 급여수준 향상 내용을 명시했으며, 최근 본계약 체결시 고용보장 준수를 약속했다.

SK는 인천정유가 그동안 법정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직원의 절반을 감원한 점을 감안해 고용보장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정유가 현재 총 정제능력인 하루 27만5000배럴의 50% 수준 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증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SK는 2006년 1월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인천정유 채권단에 대한 정리채무 변제와 법정관리 종결 등을 거쳐 3월 인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2/20>